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8.4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27.55원 (+3.55원)

KOSPI

6,257.45 (-388.00, -5.12%)

KOSDAQ

737.35(+17.59, +2.44%)

국고채 10년 금리

4.264(+0.003%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음료/담배

종합가공업체 '판가 인상'은 '바닥 시그널' [심은주]

Global Asset Strategy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확장의 대응전략 [박승진]

New K-ETF

AI데이터센터 밸류체인, 피지컬AI Top2+ 액티브 [박승진]

New K-ETF

SK하이닉스&샌디스크 채권혼합, S&P500 액티브 [박승진]

DIN (Doo It Now)

하루의 반등이 아니라, 시대의 방향을 보라 [김두연]

해외채권

미-일 환율 공조. 베센트의 FIMA Repo 언급 [허성우]

기업분석

S-Oil

사상 최대 실적과 그렇지 못한 주가 [윤재성]

현대제철

그래도 조금씩 개선 중 [박성봉]

LX인터내셔널

하반기에도 이어질 증익 기조 [유재선]

파인애플

[탐방노트] 신규 고객사가 여는 양산 사이클 [권태우]

산업분석

통신 장비

미국 무선통신주 반등 신호가 가지는 함의 [김홍식]

완성차 도매판매 동향

상반된 양사의 도매판매. EV 신차 모델템의 차이 [송선재]

Weekly & Bi - Weekly

계약/바이오 Biweekly

실적 발표도 끝, 수급을 기다리는 기간 [김선아]

건설 Weekly

주택마진이 보여준 실적, 부진한 주택지표 [김승준]

글로벌리서치

재팬토바코

2Q26 Re: 시장 기대치 상회 [심은주]

Murata

가격 조정 가능성 확대 [김민경]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한국금융지주, BNK금융지주, CJ제일제당, 풍산, 두산퓨얼셀, 제너

하나증권

2026년 8월 4일 | 산업분석_Earnings Preview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7월 31일

오리온(271560)

BUY | TP 220,000원 | CP 131,800원

C제일제당(097950)

BUY | TP 370,000원 | CP 191,400원

삼양식품(003230)

BUY | TP 1,800,000원 | CP 1,168,000원

음식료/담배

종합가공업체 '평가 인상'은 '바닥 시그널'

평가 인상 가시화 감안시, 현 주가 바닥으로 반등 모색할 듯

7월 들어, 종합가공식품 업체들의 평가 인상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만두 등 27개 품목에 대해 평균 8% 평가 인상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오뚜기는 카레, 케첩 등 29개 품목에 대해 6~17% 평가 인상을 발표했다. 사조그룹도 참치캔, 식용유지 등 품목에 대해 10% 내외 평가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2분기부터 부자재 단가 인상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3분기는 곡물 투입가도 YoY 유의미한 상승이 예상된다. 유틸리티나 인건비 등 기타 다른 비용 상승까지 감안하면 평가 인상 릴레이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다만, 하반기는 각사 비용 통제 및 신제품 판매 확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가 인상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이익 가시성을 회복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곡물가 업사이클 시기인 2010~2012년 및 2020~2023년을 복기해보면, 곡물가 사이클 변곡점에서 종합가공식품 업체가 먼저 평가 인상을 단행해왔다. 종합가공식품 업체들의 평가 인상 시점은 업종 지수 바닥이었다. SKU가 많은 종합가공식품 업체 특성상, 업종 전반에 걸친 이익 가시성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분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상 대비 선방, 업종 투자심리 환기될 것

2분기 대형주는 주지했던 것처럼, ① 견조한 수출 성장, ② 우호적인 환율 효과, ③ 비용 효율화 기인해 일부 원재료 및 부자재 단가 인상을 상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KT&G/삼양식품/오리온/C제일제당이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 예상과는 달리, 중형주도 우려 대비 선방하는 실적이 예상된다. ① 내수 신제품 판매 호조, ② 관세 환급, ③ 금 관련 총당금 환입 등에 기인한다. 결론적으로 업종의 2분기 실적 가시성 훼손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농심은 해외에서의 효율적인 광판비 집행을 통해 시장 기대(OP 480억원)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판단된다. 롯데유통푸드는 국내 신제품(칸초 이름찾기2, KBO 빼빼로 등) 판매 주효 및 인도 우호적인 날씨 기인한 병과 판매 호조로 시장 기대(OP 450억원)에 부합 or 소폭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된다. 하이트진로도 금 관련 총당금 환입 및 신제품(테라 제로) 판매 확대를 통한 손익 방어로 시장 기대(OP 600억원)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형주부터 비중 확대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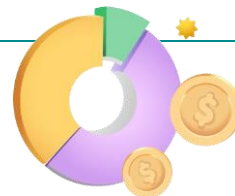
현재 업종 주가는 12개월 Fwd PER 11배 내외로 하락한 상황이다. 역사적 하단에 위치한다. 이번 평가 인상을 계기로 업종 지수는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인상을 단행한 CJ제일제당을 비롯,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오리온 및 삼양식품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재차 유지한다. 중형주 업체들의 주가도 하방 경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8.3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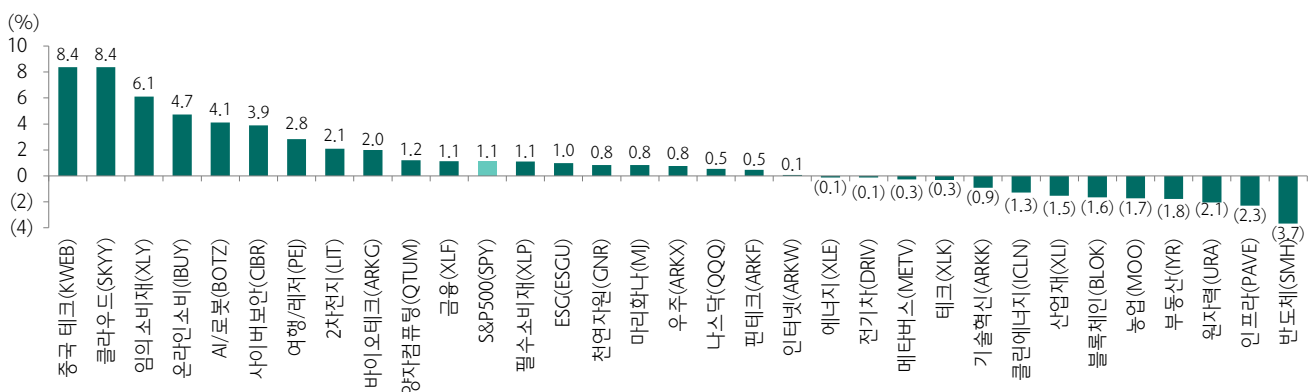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확장의 대응전략

단기 반등 VS 변동성 기준 고려한 종목 선택: IGV/XLK, KBEB, CIBR, PAVE/AIRR, DIVO/QDVO 등 활용

- 글로벌 수급:** 주식형 ETF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초가 지속되었다. 북미지역 주식형 ETF 시장으로의 투자자금 유입 규모가 2주만에 다시 +300억달러대로 증가한 가운데, 신흥아시아 지역의 주식형 ETF에서는 3주 연속으로 +200억달러가 넘는 매수세가 확인되었다. 서유럽과 남미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의 주식형 ETF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글로벌 주식형 ETF 시장에 총 +710.9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한편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에서는 북미 지역 채권형 ETF 시장으로 +75.7억달러가 유입되면서 선진국 채권형 ETF 시장에 총 +91.5억달러가 순유입된 반면, 신흥국 채권형 ETF 시장에서는 -4.3억달러가 순유출되었다.
- 종목별 수급:** 미국 ETF 시장의 종목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낙폭이 컸던 반도체와 기술주 테마 ETF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 유입이 확인되었다. 주식형 ETF 종목 중에서는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종목들인 SOXX와 SMH로 각각 +40.8억달러와 +33.0억달러가, 반도체 섹터 3배 레버리지 ETF인 SOXL에도 +24.0억달러의 자금이 함께 유입되었다. 대표 지수형 ETF 종목군의 경우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VOO에 총 +51.3억달러, Nasdaq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에 +39.2억달러가 유입되었으며,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Nasdaq100 지수의 3배 레버리지 ETF인 TQQQ에도 +8.5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금융 섹터 ETF인 XLF와 Russell200 지수 추종 ETF인 IWM, AI 기술주 테마 ETF인 AIQ, 제약 섹터 ETF인 FTXH 등의 종목들이 자금 유입 상위 종목 리스트에 함께 자리하였으며, IVV(S&P500)와 XLV(헬스케어) 등에서는 투자자금이 유출되었다.
- 채권형 ETF 종목군의 경우** 매파적 스탠스가 늘어난 연준 방향성이 확인된 가운데 VTEB/MUB(지방정부채권), SGOV(초단기국채), HYG(HY회사채), BND(US Total)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며, LQD(IG회사채), TLT(장기국채), USHY(HY회사채) 등에서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갔다. 원자재 ETF 종목군에서는 대표 금 현물 ETF인 GLD와 IAU에서 총 -2.3억달러, 원유 선물 ETF인 USO에서 -1.6억달러의 투자자금 유출 현상이 나타났다.
- ETF 포트폴리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을 확인했으나, 이번주에도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SpaceX를 비롯해 AMD, Palantir, Eli Lilly, Novo Nordisk, SanDisk 등의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며, 7월 ISM 제조업·서비스업 PMI와 7월 고용보고서가 확인된다. 반도체 섹터 중심의 조정이 진행된 후 시장에서는 실적을 통해 AI 투자 사이클의 모멘텀 지속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인 가운데, AMD와 Arista Networks, Palantir, Cloudflare 등 AI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은 AI 투자 모멘텀이 실제 기업들의 매출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줄 것이다.
- 먼저 화요일(8/4) 미국 증시 마감 후에는 AMD와 SpaceX가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다.** AMD는 MI350 시리즈 출하에 따른 데이터센터 GPU 매출 성장과 CPU 점유율 확대가 2분기 실적의 핵심인데, 7월 Advancing AI 행사에서 공개된 MI400 시리즈와 Helios 랙은 3분기 말부터 매출 출하가 시작되는 만큼 주가 관점에서는 하반기 램프업 일정과 가이드نس가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것이다. SpaceX의 경우 상장 이후 처음 발표되는 실적으로 적자가 예상되지만, 손실 규모보다 Starlink의 가입자매출 성장과 AI 데이터센터 부문의 매출 인식,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현금흐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여기에 실적이 발표된 2거래일 후부터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어 5일 Sandisk와 Western Digital의 실적 내용에서 메모리 업황을, 6일의 Cloudflare, Datadog 실적에서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수요와 투자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경제지표의 경우 7월 ISM 보고서(3일: 제조업, 5일: 서비스업)와 고용보고서(8/6)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실업률은 4.2% 유지, 비농업고용자 수는 +8.0만명(6월: +5.7만명)까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부 지표의 관점에서 실업을 데이터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상승률, 고임금 업종의 고용 기반 약화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9월 FOMC에 대한 시장의 금리인상 확률이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케빈 워시 의장이 최근에도 연준의 이중책무 목표에 대해 언급한 상황에서, 유가와 고용보고서의 조합이 주 후반까지 시장금리 반락을 끌어 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 ETF 포트폴리오의 경우 조정 후에 진행되는 단기 반등 기대와는 별개로 반도체 섹터(SMH/SOXX/DRAM)의 변동성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주 전반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ETF들(IGV/XLK/VGT)과, 액티브 운용 방식을 통해 유연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한 CHAT/BAI(AI 액티브) 등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수요 변화의 방향성이 반영될 KSTR/CQQQ(중국반도체/중국기술주) 등도 포지션을 분산하는 관점에서 고려해볼만한 선택지로 생각된다.
- 실적시즌의 잉여현금흐름에서도 나타난 Hyperscalers의 자금 조달 수요 및 대형 IB 딜 증가 흐름, 순환매 가능성의 염두 하에 KBWB(대형은행)를, 해킹 이슈들과 함께 소프트웨어종 내 안정적 수익 기반이 부각되는 CIBR(사이버보안), 투자 중심의 경제 사이클과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글로벌 경쟁 구도 하에서 모멘텀이 유효한 PAVE(인프라)와 AIRR(중소형제조업), XLI(산업재)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한다는 판단이다. 변동성이 반복되는 현 국면의 특성을 고려하면 커버드콜 액티브 ETF인 DVO/QDVO도 적절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테마형, 섹터 ETF들의 주간 수익률



주: 2026.7.27~7.31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3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AI데이터센터 밸류체인, 피지컬AI Top2+ 액티브

신규 상장 ETF(8/4)

- 마이티 AI데이터센터 밸류체인, WON 피지컬AI TOP2플러스 액티브

마이티 AI데이터센터 밸류체인: AI 데이터센터 밸류체인의 국내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1) 설계 및 건축, 2) AI 반도체 및 스토리지, 3) 네트워크, 4) 에너지 및 발전, 5) 전력인프라 및 냉각 공조 시스템, 6) 운영, 7) 서비스의 7개 세부 섹터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편입한다.

상기 밸류체인 산업과의 키워드 스코어링 작업을 진행한 후, 시가총액과 키워드 스코어링 점수를 7 대 3의 비중으로 가중하여 상위 점수의 최종 편입 대상 기업들이 선정된다. 개별 종목들의 편입 비중은 동일가중 50%, 유동시총가중 50%의 혼합 방식으로 결정한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2회(6월과 12월의 3주차 첫 영업일)에 시행하며, 10%의 Cap Rate 기준으로 개별 종목의 최대 편입 비중을 제한한다. 0.365%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패시브 ETF 종목이다.

WON 피지컬AI TOP2플러스 액티브: 피지컬 AI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국내 대표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ETF이다. AI의 Brain과 로봇의 Body 부문을 대표하는 국내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Top2 포지션에 편입하고, 피지컬 AI와 관련성이 높은 밸류체인 기업들을 함께 채워 넣는 형태의 포트폴리오이다.

대표 종목에 비중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로봇의 두뇌와 몸통, 핵심 부품과 전력 인프라까지 피지컬 AI 전반에 투자하는 구성으로, 비교지수와 상관계수 0.7의 유지 조건이 적용되는 액티브 운용 방식의 ETF 종목이 되겠다.

비교지수인 'FnGuide AI TOP2 피지컬 플러스 지수'는 유동성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상장 기업들을 Robotics, Core Parts, Intelligent, Energy의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키워드 스코어링 작업을 진행한다. 이어 유동성 조건(시총 5천억원 이상)을 충족시키는 키워드별 스코어 상위 종목 선별 절차를 거쳐 TOP2 외 종목들을 선정하고, 비교지수 내 TOP2 기업들의 편입 비중은 각각 23%로, 나머지 종목들은 4개 카테고리 별로 13.5%의 비중을 부여한 후 각 카테고리 내에서 구성 종목 수에 따라 동일가중방식으로 개별 편입 비중(Cap Rate 3.5%의 상한 비중 적용)을 할당한다. 비교지수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3월/6월/9월/12월의 읍선 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에 걸쳐 진행된다.

액티브 ETF인 만큼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비중을 각각 25%씩, 총 50% 수준으로 편입하는 방향성을 추구한다. 총 보수는 0.49%이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도표 1. 마이티 AI데이터센터 밸류체인, WON 피지컬AI TOP2플러스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마이티 AI데이터센터밸류체인	WON 피지컬AI TOP2플러스액티브
상장일	2026년 8월 4일 화요일	2026년 8월 4일 화요일
기초(비교)지수	KAP AI데이터센터밸류체인지수	FnGuide 피지컬AI TOP2플러스 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365%	0.49%
구성종목 수	24종목	31종목 ('26년 6월말 기준)
비중결정방식	동일가중 50%+유동시총가중 50%	- TOP2: 종목별 23% 비중 부여 - 잔여 종목: 카테고리별 13.5% 동일가중 (종목별 상한 3.5%)
정기변경	연 2회 (매 6월, 12월 3주차 첫 영업일)	연 4회 (매 3, 6, 9, 12월 옵션 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

자료: KRX, 하나증권

2026년 8월 3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자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New K-ETF

SK하이닉스&샌디스크 채권혼합, S&P500 액티브

신규 상장 ETF(8/4)

- PLUS SK하이닉스&샌디스크 채권혼합50, HANARO 미국S&P500 액티브

PLUS SK하이닉스&샌디스크 채권혼합50: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 주식과 국내 채권을 함께 편입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채권혼합형 ETF이다. HBM, DRAM, NAND을 중심으로 AI 시대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인 메모리 분야의 대표기업들과 안전자산인 국채의 조합이다.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 주식을 각각 25%씩 편입하여 총 50%의 주식 포지션을 구축하고, 9개의 국채 종목들로 구성된 채권 포지션에도 50%의 비중을 할당한다.

채권 포지션의 경우 국채선물 3년물의 근월물 바스켓 종목들을 우선 편입 대상으로 하며, 지수 평균 듀레이션 및 국채선물 바스켓 종목들과의 평균 듀레이션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채권들 가운데 최근에 발행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포트폴리오가 구성된다.

주식 포트폴리오와 채권 포트폴리오의 50 대 50 비중은 일간 기준으로 조정해 나가며, 이와 별개로 주식 포지션에 대해서는 연 2회(6월과 12월), 채권 포지션은 매년 4회(3월/6월/9월/12월)에 걸쳐 정기 리밸런싱을 진행한다.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비중까지 편입 가능한 ETF 종목이 되겠다. 총 보수는 0.25%이다.

HANARO 미국S&P500 액티브: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 중 하나인 S&P500 지수 기반의 액티브 ETF이다. 미국의 주요 500여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S&P500 지수를 비교지수로 설정하고 상관계수 0.7의 조건을 유지하는 한편, 액티브 운용 방식을 통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ETF 종목이 되겠다. 비교지수의 리밸런싱은 연 4회(3월/6월/9월/12월)에 걸쳐 진행된다. 0.50%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액티브 ETF이다.

도표 1. PLUS SK하이닉스&샌디스크 채권혼합50, HANARO 미국S&P500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PLUS SK하이닉스 샌디스크채권혼합50	HANARO 미국S&P500액티브
상장일	2026년 8월 4일 화요일	2026년 8월 4일 화요일
기초(비교)지수	Akros SK하이닉스 샌디스크 채권혼합 50 지수	S&P500 Index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25%	0.50%
구성종목 수	주식 2종목, 채권 9종목	503종목 ('26.6월말 기준)
비중결정방식	- 주식 : SK하이닉스 25%, 샌디스크 25% - 채권 : 동일가중방식	유동시가중액 가중방식
정기변경	- 주식 : 연 2회 (매 6월, 12월) - 채권 : 연 4회 (매 3, 6, 9, 12월)	연 4회 (매 3, 6, 9, 12월)

자료: KRX, 하나증권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2026년 8월 4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DIN (Doo It Now)

하루의 반등이 아니라, 시대의 방향을 보라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자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의 가격만으로 추세 복귀를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7월 31일의 기록적 반등은 한국 증시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7월 수출과 기업 실적은 AI와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견고함을 확인했지만, 전월 대비 수출 둔화와 금리 및 빅테크 현금흐름 논쟁은 8월 변동성을 예고한다. 따라서 급등을 추격하거나 급락을 추세의 끝으로 해석하기보다, 수출과 이익이 확인되고 AI 투자가 실제 매출과 현금흐름으로 연결되는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 단기 수익률은 타이밍이 결정하지만, 장기 수익률은 산업의 방향과 기업의 이익, 그리고 시간을 견디는 힘이 결정한다.

7월 31일 코스피는 17.91% 오른 6,595.45에 마감했다. 상승폭과 상승률 모두 사상 최대였다. 그러나 7월 전체로는 22.19% 하락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로 큰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 하루의 반등이 한 달간의 충격을 모두 지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낙폭 과대 반등으로만 볼 수도 없다. 삼성전자 26.81% 올랐고,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자금은 시장 전체가 아니라 반도체와 AI 밸류체인으로 집중됐다. 시장이 다시 주도주를 선택한 것이다.

수급의 주체도 바뀌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를 합친 외국인 순매수는 8조 7,709억원으로 역대 최대였고, 개인은 10조 3,83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매수가 이어질지는 더 확인해야 하지만, 투매와 반등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점은 중요하다. 결국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반등의 크기가 아니라 주문과 수출, 그리고 이익이다.

7월 수출은 988.9억 달러로 전년보다 62.8% 증가했다.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였고, 무역수지는 303.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41.2억 달러로 69.6% 늘어 6월 증가율을 웃돌았다. 전년 대비 수출 모멘텀은 오히려 강화됐다. 다만 전월 대비 속도는 낮아졌다. 7월 수출 총액은 6월보다 3.3%, 일평균 수출액은 9.3%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도 전년 대비 178.8% 증가한 410.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사상 최대였던 6월보다는 8.5% 줄었다. 전년 대비로는 가속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감속한 셈이다.

그럼에도 수출 회복의 폭은 넓어지고 있다. 20대 주력 품목 가운데 1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고,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26% 늘었다. 7월 수출은 정점 통과보다 높은 고원에서의 정상화에 가깝다. 방향은 살아 있지만,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기업 실적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171.5조원, 영업이익 89.5조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매출 79조 3,187억원, 영업이익 60조 5,426억원으로



국내외 주식시장 김두연 kimdooun@hanafn.com
주식시장 RA 최욱 wookchoi@hanafn.com

최고치를 경신했다. HBM과 서버 DRAM, 기업용 SSD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따라서 7월 31일의 반등이 AI와 메모리 산업의 방향을 새롭게 증명한 것은 아니다. 방향은 이미 수출과 실적이 보여주고 있었다. 이날의 반등은 최근 하락이 펀더멘털 붕괴보다 포지션 청산과 수급 불안에 가까웠음을 확인한 사건이다.

8월의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반도체 가격의 추가 상승 여부,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지속성, 높은 금리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하이퍼스케일러의 현금흐름도 엇갈린다. 알파벳은 대규모 설비투자로 분기 잉여현금흐름이 적자로 돌아섰지만 최근 12개월 기준으로는 흑자를 유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막대한 투자에도 견조한 현금을 창출했다. 빅테크 전체가 현금 부족에 빠진 것이 아니라, AI 투자 여력과 수익화 속도의 격차가 커지는 것이다.

연준은 7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높은 금리의 장기화 가능성만으로도 성장주의 할인을 부담은 커진다. 하나증권은 9월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8월의 핵심은 금리 수준보다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흔들리는가에 있다.

주가도 두 힘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한쪽에는 낮아진 가격과 사상 최대 실적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급락 과정에서 형성된 손익분기 매물과 레버리지 포지션이 남아 있다. 싸다는 인식은 하단을 지지하지만, 반등할 때마다 나오는 매물은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다. 8월의 회복은 직선적인 V자보다 저점을 확인하는 계단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반대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외국인이 대형 반도체주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면 시장은 재진입할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금리나 AI 투자에 균열이 생기면 레버리지가 변동성을 다시 키울 수 있다. 방향을 단정하기보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포지션이 필요하다.

계절성은 8월에 우호적이지 않다. 1980년 이후 코스피의 8월 평균 수익률은 약 -1.4%로 12개월 가운데 가장 낮았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와 연준 의장 교체, 금리 인상이 함께 나타난 2006년과 2018년에는 평균 2.72% 상승했다. 표본은 두 번뿐이고, 2026년 연준은 아직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 통계는 답이 아니라 좌표다. 계절성보다 중요한 것은 이익과 수출, 금리와 수급이다. 7월 30일과 31일의 시장은 전혀 달라 보였지만, 기업의 주문과 수출, 이익이 하루 만에 바뀐 것은 아니다. 달라진 것은 가격과 심리였다.

8월의 전략은 명확하다. 급등을 추격할 필요도, 급락을 추세의 끝으로 단정할 필요도 없다. 수출과 이익이 확인되고 AI 투자가 실제 매출과 현금흐름으로 연결되는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 반도체 안에서도 고객과 계약 구조, 제품 경쟁력과 공급 능력에 따라 차별화가 커질 것이다. 단기 수익률은 타이밍이 결정한다. 그러나 장기 수익률은 산업의 방향과 기업의 이익, 그리고 시간을 견디는 힘이 결정한다.

한국 증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반등의 높이가 아니라 이익의 방향을 사야 한다.

2026년 8월 3일 | Global Fixed Income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채권

미-일 환율 공조. 베센트의 FIMA Repo 언급

- 15년 만에 미-일 외환시장 공동 개입 선언. 일본 재무성은 향후 FIMA 레포 시설 활용 가능성을 시사. 즉, 미 국채 매각하지 않고 엔화 개입 위한 달러 현금 조달 가능
- 일본은 미국과 달러 스와프를 체결한 국가에도 불구하고 FIMA Repo 활용을 시사한 것
- 베센트도 FIMA Repo를 언급. 본인도 장기 금리 안정에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
- 단, 국가 간 공조 통한 단발성 개입은 엔화 구조적 약세 흐름을 바꾸기에 쉽지 않을 것

미국과 일본의 FIMA Repo 언급

일본은 그간 엔화 방어를 위한 개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유 중인 미 국채를 매도해 왔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일본의 엔화 매수 개입 규모와 미 국채 보유액 감소 추이가 상당 부분 겹치는데, 이는 일본이 외환시장 개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미 국채를 현금화해 왔음을 시사한다. [도표 1]

일본은 7/31 '달러 매도+엔화 매수' 개입을 단행했고, 같은 날 미국도 뉴욕 연준을 통해 '유로 매도+엔화 매수'에 나섰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15년 만의 미-일 공동 외환시장 개입이며, 특히 미국이 엔화 매수 개입에 직접 참여한 것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으로, 평상시에 보기 힘든 조치라는 점에서 시장에 강한 시그널로 작용했다.

미국은 엔화 강세를 유도하되 미국 금리 상승은 자극하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달러를 새로 풀어 엔화를 매입하기보다, 이미 보유 중인 유로화(EUR)를 매도해 엔화(JPY)를 매입하는 방식은 자국 자산과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개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 외환보유고(ESF) 중 외화 실물 자산은 유로화와 엔화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 통화 중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고 비상시 G7 공조 개입에 즉시 동원 가능한 통화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부분은 향후 엔화 개입 과정에서 연준 FIMA(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Repo 창구 활용 계획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FIMA Repo 시설은 미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매각하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연준이 마련한 유동성 지원 제도다. 해외 중앙은행은 보유한 미 국채를 연준(SOMA)에 담보로 제공하고, 만기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의 환매조건부(Repo) 거래를 통해 달러를 차입한다. 2020년 3월 도입되어 2021년 7월 상설 제도로 전환됐다.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크레디트스위스(CS)의 대규모 뱅크런 위기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달러 유동성 경색이 발생했다. 투자자-예금자의 불신이 극에 달하며 CS에서 막대한 달러 자금이 급격히 유출됐고, 스위스 당국과 SNB는 긴급 유동성 지원과 UBS의 CS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달러 현금을 긴급 조달해야 했다.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2026년 8월 4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220,000원(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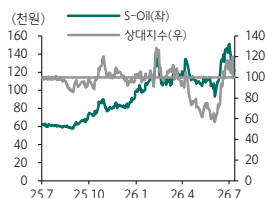
현재주가(8.03) 121,7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257.45
52주 최고/최저(원)	151,200/57,800
시가총액(십억원)	13,701.3
시가총액비중(%)	0.27
발행주식수(천주)	112,582.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51.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3.9
외국인지분율(%)	79.80
주요주주 지분율(%)	
Aramco Overseas Company BV 외 5인	63.43
국민연금공단	9.3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41,708.9	38,604.7
영업이익(십억원)	3,590.5	2,702.1
순이익(십억원)	2,446.1	1,928.6
EPS(원)	20,978	16,540
BPS(원)	95,104	108,137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6,637.0	34,247.0	39,100.7	40,081.3
영업이익	422.2	235.6	4,522.4	4,253.9
세전이익	(332.5)	173.2	3,828.9	4,071.8
순이익	(193.0)	177.0	2,910.0	3,094.6
EPS	(1,656)	1,518	24,956	26,539
증감율	적전	흑전	1,544.01	6.34
PER	(33.09)	54.68	5.10	4.80
PBR	0.73	1.09	1.27	1.05
EV/EBITDA	10.50	14.96	3.06	2.68
ROE	(2.18)	2.01	28.27	23.91
BPS	74,590	76,234	100,352	121,690
DPS	125	330	4,200	9,000



Analyst 윤재영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S-Oil (010950)**사상 최대 실적과 그렇지 못한 주가****2Q26 영업이익 컨센 부합**

2Q26 영업이익은 0.97조원(QoQ -22%, YoY 흑전)으로 컨센(0.96조원)에 부합했다. 정유 둔화에도 불구하고, 윤활기유가 대폭 개선됐다. 정유 영업이익은 0.5조원(QoQ -49%)을 기록했다. 6월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OSP가 재고로 인식되어 재고관련손익 규모는 미미했다. 오히려, 정기보수로 CDU/고도화설비 가동률이 QoQ -10%p 이상 하락하며 기회손실이 수 천억원 반영된 것으로 추정한다. 윤활기유 영업이익은 0.47조원(QoQ +187%, OPM +37%)을 기록했다. 카타르 Pearl GTL Train2의 설비 타격에 따라 그룹3를 중심으로 윤활기유 가격/마진이 동반 급등한 영향이다. 참고로, 한국의 윤활기유 수출 마진은 QoQ 약 3배 급등했다.

3Q26 영업이익 QoQ +12% 증익 전망

3Q26 영업이익은 1.08조원(QoQ +12%, YoY +372%)을 추정한다. 당초 추정치 0.49조에서 상향한 수치이며, 현재 컨센(0.63조원) 대비 +71% 높다. 정제마진/윤활기유 강세를 반영한 영향이다. 정유 영업이익 0.42조원(QoQ -22%)을 추정한다.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7월 평균 정제마진은 Spot /Lagging 모두 2Q26 대비 높고, 8~9월에는 낮은 유가+OSP가 투입되기에 QoQ 마진 훼손은 거의 없다. 2) 이 경우, 전분기에 발생한 수천억원(5천억원 내외 추정)의 기회손실은 원복된다. 3) 다만, 분기 말 Dubai 70\$/bbl을 가정해 재고관련손실 약 0.6조원이 발생한다. 윤활기유 영업이익은 0.68조원(QoQ +43%, OPM +48%)으로 대폭 개선을 추정한다. 7월 한국의 윤활기유 수출 판가는 MoM +17%, 수출 마진은 MoM +29% 추가 상승했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반기 모멘텀 1) 윤활기유 추가 이익 확대 2) OSP 마이너스 재확인 3) 유가 안정

BUY 유지, TP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한다. 2026~27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7~20% 상향함에 따라 BPS 상승분을 반영했다. Target Multiple은 기존과 동일한 PBR 2배다. 내수가 상한제에 따른 기회손실 및 적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2026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4.5조원(YoY +1,469%) 도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 호황기 2018년 고점 PBR 2.5배 대비 충분히 보수적인 Target Multiple 설정이다. 2027년 영업이익은 4.3조원(YoY -6%)을 추정한다. 정제마진/윤활기유 마진 조정에도 불구하고 내수 상한제 해제와 OSP의 구조적인 마이너스 국면 진입을 가정했다. 하반기 모멘텀은 세 가지다. 1) 윤활기유 추가 이익 확대다. 카타르 Pearl GTL Train2는 2027년 1분기 말 정상 가동될 예정이기에 해당 시점까지 윤활기유 강세는 불가피하다. 참고로, 회사는 2021년 2~3분기 윤활기유 OPM 40%를 상회한 바 있는데, 7월 마진은 215\$/bbl 당시 평균 마진 88\$/bbl 대비 3배 가까이 높다. 2) OSP의 마이너스 국면 확인이다. 9월 OSP도 8월과 동일하게 마이너스권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여전히 WTI 대비 Dubai가 약 3~4/bbl 저렴한데다 중국/인도의 사우디 원유 수요가 약하며 OPEC은 9월 쿼터를 인상하며 1차 자발적 감산을 모두 끝냈기 때문이다. 3) 유가 안정화는 내수 상한제 해제를 통해 더 높은 이익 창출을 위한 좋은 트리거가 될 수 있다. 호황 사이클 진입을 감안해 주가 조정 시마다 매수를 권한다.

2026년 08월 04일 | 기업분석_ Earnings 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50,000원
현재주가(8.03) 24,8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257.45
52주 최고/최저(원)	46,500/24,500
시가총액(십억원)	3,309.5
시가총액비중(%)	0.06
발행주식수(천주)	133,445.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916.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2.9
외국인지분율(%)	16.96
주요주주 지분율(%)	
가외 6인	35.96
국민연금공단	8.84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3,912.5	24,661.3
영업이익(십억원)	391.1	732.8
순이익(십억원)	125.3	407.8
EPS(원)	896	2,979
BPS(원)	148,839	151,130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3,226.1	22,733.2	23,953.6	24,957.3
영업이익	159.5	219.2	426.8	672.0
세전이익	(59.5)	(43.2)	184.7	449.3
순이익	(11.6)	(6.9)	125.0	306.0
EPS	(87)	(52)	936	2,293
증감율	적전	적지	흑전	144.98
PER	(241.95)	(597.12)	28.15	11.49
PBR	0.15	0.21	0.18	0.18
EV/EBITDA	6.14	6.17	5.74	5.24
ROE	(0.06)	(0.04)	0.64	1.57
BPS	142,610	146,001	146,444	147,998
DPS	750	500	750	750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현대제철 (004020)**그래도 조금씩 개선 중****2Q26 판매 증가와 판재류 스프레드 확대 긍정적**

2026년 2분기 현대제철의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1조원(YoY +2.7%, QoQ +6.4%)과 577억원(YoY -43.3%, QoQ +267.5%)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인 759억원을 하회했다.

1) 봉형강 중심의 판매 회복으로 2분기 전체 판매량은 442만톤(YoY -2.3%, QoQ +3.7%)을 기록하며 고정비가 축소되었다. 2) 고로는 ASP가 4.0만원/톤 상승한 반면, 원재료 투입단가가 4.5만원/톤 상승하면서 스프레드가 소폭 축소되었다. 3) 전기로는 원재료 투입단가가 3.0만원/톤 상승했지만 ASP가 6만원/톤 상승하면서 스프레드가 대폭 확대되었다. 4) 현대제철 뿐만 아니라 기타 자회사들도 특별한 일회성 요인은 부재했다.

3분기 판매는 감소하겠지만 스프레드 확대 전망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현대제철의 판재류와 봉형강 모두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3분기 전체 강재 판매량은 424만톤(YoY -2.4%, QoQ -4.1%)을 기록하며 판매량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수익성 측면에서 고로 원재료 투입단가는 전분기와 유사한 0.3만원/톤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용 강판과 조선용 후판을 비롯하여 국내 대형 수요가들과의 가격 협상에 있어 의미 있는 수준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ASP는 3.8만원/톤 상승할 전망이다. 전기로 또한 2분기 국내 철근 유통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철 가격 상승으로 여전히 영업적자 기록 중으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형 건설사들과의 고정 계약을 통한 적극적인 가격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ASP가 4.2만원/톤 상승할 전망이다. 최근 고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로 투입원가는 2.7만원/톤 상승에 그치며 스프레드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종합하면 현대제철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156억원(YoY +23.9%, QoQ +100.3%)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50,000원 유지

현대제철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50,000원을 유지한다. 적극적인 가격 인상을 통한 판재류 중심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반도체 시 데이터센터용 봉형강 수요 확대도 예상된다. 현재 주가는 PBR 0.2배로 밴드 최하단에 근접한 상황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제한적이라 판단된다.

2026년 8월 4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66,000원
현재주가(8.03) 33,55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257.45
52주 최고/최저(원)	56,700/29,150
시가총액(십억원)	1,300.4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38,76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74.9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7.0
외국인지분율(%)	27.04
주요주주 지분율(%)	
엘엑스홀딩스	27.83
국민연금공단	9.94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8,124.8	18,223.0
영업이익(십억원)	482.4	447.2
순이익(십억원)	344.8	324.6
EPS(원)	7,720	7,325
BPS(원)	84,902	90,490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6,637.6	16,706.3	18,839.2	18,583.7
영업이익	489.2	292.2	490.1	470.9
세전이익	460.4	202.8	475.3	420.9
순이익	175.7	141.8	289.9	284.1
EPS	4,533	3,659	7,478	7,331
증감율	50.05	(19.28)	104.37	(1.97)
PER	5.97	8.88	4.49	4.58
PBR	0.39	0.45	0.42	0.39
EV/EBITDA	3.84	5.19	3.94	3.75
ROE	7.12	5.22	9.90	8.93
BPS	69,684	72,567	80,637	85,648
DPS	2,000	2,000	2,500	2,50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hyun@hanafn.com

LX인터내셔널 (001120)**하반기에도 이어질 증익 기초****목표주가 66,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LX인터내셔널 목표주가 66,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모든 부문에서 고른 이익 성장이 나타났다. 하반기 자원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생산량 규제가 해소될 필요가 있으나 물류 부문의 증익만으로도 견조한 실적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반기 자원 부문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대비 증익 기초는 여전히 유효하며 연간 이익 성장으로 기말 DPS도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기준 PER 3.9배, PBR 0.4배다.

2Q26 영업이익 1,178억원(YoY +114.2%)으로 컨센서스 부합

2분기 매출액은 4.8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4.7% 증가했다. 환율 상승, 트레이딩 물량 증가, 운임 강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하반기에도 해운 시황 강세에 따른 물류 부문 중심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은 1,178억원으로 전년대비 114.2% 증가했다. 자원 부문은 팜과 니켈에서 유의미한 이익 성장이 나타났다. 팜은 B50 정책 시행으로 긍정적인 시황이 전개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전년대비 증익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니켈은 2분기 판가 급등과 판매량 증가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광산 생산쿼터 추가 발급이 제한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고품위 중심 생산을 통해 마진 방어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은 전년대비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인도네시아 저열량탄 지표인 ICI4는 전년대비 36% 개선되었지만 유류비 상승에 의한 OPEX 부담 확대와 공동개발 광산 생산량 감소 때문이다. 트레이딩/신성장은 석탄 시황 호조와 자회사 실적 회복으로 전년대비 개선되었다. 3분기도 자원 트레이딩 물량 증가와 IT 성수기 효과로 안정적인 이익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물류는 CL 사업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상운임 상승으로 하반기 이익률 상승이 예상된다. 현재 SCFI는 3천포인트 수준으로 전년대비 2배 가량 높아진 상황이며 시차를 감안할 때 하반기에 유의미한 실적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분법은 중국 내수 석탄가격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개선되었다.

니켈에서 보크사이트까지 인도네시아 자원 역량 확보에 집중

현재 인도네시아 서부 칼리만탄 지역에서 보크사이트 광산 투자를 진행 중이다. 금액 기준 투자 규모는 기존 AKP 광산(지분 60% 약 1억달러)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기존 Capex 계획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니켈 광산 추가 투자도 병행하여 진행 중이며 AKP보다 규모가 큰 대형 광산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연내 투자 결과가 가시화될 경우 물량 확보를 통한 트레이딩 수익성 개선 및 협상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6년 08월 04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현재주가(8.3)

7,27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737.35
52주 최고/최저(원)	14,060/5,340
시가총액(십억원)	305.7
시가총액비중(%)	0.07
발행주식수(천주)	42,044.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37.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8
외국인지분율(%)	5.82
주요주주 지분율(%)	
홍성천 외 5인	26.2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529	629
영업이익(십억원)	37	63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610	951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16	380	382	239
영업이익	5	20	(8)	2
세전이익	(7)	15	(19)	(17)
순이익	(7)	11	(17)	(15)
EPS	(710)	299	(466)	(393)
증감율	N/A	흑전	적전	적지
PER	(8.7)	30.1	(11.3)	(25.0)
PBR	1.8	2.2	1.4	2.2
EV/EBITDA	30.2	12.0	70.4	43.6
ROE	(6.7)	7.0	(12.3)	(7.6)
BPS	3,452	4,080	3,781	4,461
DPS	0	0	0	0



Analyst 권태우 tkwon@hanafn.com
RA 김진우 jinwookim1336@hanafn.com

파인애플 (441270)**[탐방노트] 신규 고객사가 여는 양산 사이클****폴더블 백플레이트 세계 최초 상용화 기업**

파인애플은 2022년 파인테크닉스에서 인적분할해 설립된 정밀 기구부품 기업으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하부에서 패널을 지지하는 백플레이트가 주력 제품이다. 2019년 해당 부품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후 폴더블폰 1세대 모델부터 8세대까지 누적 5,500만 세트를 공급했다. 생산은 베트남 박닌 법인이 담당해 전체 매출의 약 70%가 현지에서 발생하고, 국내 사업장은 선행개발과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2025년 연결 매출은 2,391억원으로 폴더블 백플레이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EV-ESS용 엔드플레이트 등으로 제품군을 넓히고 있다.

신규 고객사향 공급 개시, 물량과 판가의 동시 상승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북미 고객사향 폴더블 메탈플레이트 공급이다. 국내 매체는 힌지 문제가 해소되며 신제품이 7월 양산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부품은 국내 패널사를 통해 공급되고, 생산은 기존 고객사와 분리된 전용 라인에서 이뤄진다. 공정 단계가 늘어난 만큼 판가는 기존 제품을 상회할 전망이며, 설비도 연 2,000만대 수준까지 확보된 상태다. Counterpoint는 올해 폴더블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고, 북미 고객사가 패널 수요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한다. 시장 확대와 신규 물량 배정, 판가 상승이 동시에 맞물리는 국면이다.

좁아진 경쟁, 넓어지는 매출 기반

경쟁 측면의 진입장벽도 확인된다. 고객사 기준 20만회 폴딩 내구성을 충족하는 업체는 제한적이며, 중화권 경쟁 제품은 8만~10만회 수준에서 크랙 등 품질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동사는 연 1,000만개 양산에서 90% 내외의 수율을 유지해왔고, 초기 검토 벤더 다수가 품질 미달로 탈락해 동사와 중국 1개사만 남은 것으로 파악된다. 고객사가 이원화를 추진하더라도 조달 안정성을 중시하는 만큼 동사 의존도는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폴더블 외에도 국내 배터리사향 ESS용 엔드플레이트는 북미 데이터센터 수요를 기반으로 올해 약 5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며, 화면 주름을 개선하는 커버글라스 등 신규 아이템도 향후 기대 요인이다.

상반기 저점 통과, 4분기까지 이어지는 실적 개선

1분기 매출 461억원, 영업손실 22억원에서 2분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고객사향 점유율이 지난해 50% 수준에서 올해 80%까지 회복되며 물량이 2~3분기에 집중되는 흐름이다. 3분기 북미향 물량은 당초 계획을 밑돌 전망인데, 이는 동사의 공급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외장인지 업체의 수율 문제로 신제품 양산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감소분이 4분기로 이연되면서 계절적 비수기였던 4분기에도 매출과 이익 기여가 예상된다. 신규 폴더블폰 출시 후 소비자 반응에 따른 물량 편차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2027년 신규 고객사 물량이 연간으로 반영되며 성장 폭 확대가 기대된다. 단기 실적보다 구조적 변화의 방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2026년 08월 04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8월 03일

썬리드(050890)

BUY | TP 30,000원 | CP 8,910원

알에프에이(218410)

BUY | TP 150,000원 | CP 43,400원

LG아큐버(073490)

BUY | TP 80,000원 | CP 28,700원

케이엠더블유(032500)

BUY | TP 70,000원 | CP 15,050원

아이씨티케이(456010)

BUY | TP 60,000원 | CP 13,320원

우리넷(115440)

BUY | TP 25,000원 | CP 6,560원

RF머트리얼즈(327260)

BUY | TP 75,000원 | CP 23,05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 TP 60,000원 | CP 17,520원

유비쿼스(264450)

BUY | TP 22,000원 | CP 9,810원

에치에프알(230240)

BUY | TP 50,000원 | CP 14,710원

세나테크놀로지(061090)

BUY | TP 80,000원 | CP 41,500원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통신 장비

미국 무선통신주 반등 신호가 가지는 함의

버라이즌 실적발표 이후 상승중인 미국 통신3사 주가, 원인은 경매와 요금제 기대감

최근 미국 통신주 주가 양상이 심상치 않다. 일각에선 데이터센터 주도주가 하락한 탓에 경기방어주로 수급이 몰린 영향으로 해석하지만, 구체적인 통신사별 주가 추이를 보면 사실상 요금제 인상 기대감과 주파수 경매가 원인으로 보인다. 주가 상승의 원인이 경기방어였다면 버라이즌과 T Mobile의 주가가 동행해야 했지만, T Mobile 주가는 하락하다가 버라이즌 실적발표 이후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버라이즌은 2Q 기준 후불 가입자 순증세가 지난 5년내 최고치를 기록한 덕에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요금제 통합과 망 퀄리티 제고가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 통신사가 매출을 향상시킬 유일한 방법은 요금제 인상이다. 그런데 버라이즌처럼 요금제를 할인 통합할 경우 단기적으로 가입자수가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매출 상방이 막히게 되므로 보통은 신규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요금제 통합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국내는 해외는 공공재적 성질을 갖춘 통신 요금을 아무런 명분없이 인상하기란 쉽지 않고, 보통은 세대가 넘어갈때 망투자를 집행하며 이를 명분으로 요금제 업셀링을 단행한다. 이렇게 보면 버라이즌 실적 발표 이후 T Mobile 주가도 동반 상승한 원인을 이해 가능하다. AI RAN/5G SA/6G를 위한 신규 주파수와 요금제 인상 기조가 통신사 전반에 확산됐기 때문이다.

미국 통신사 CAPEX 확충의 조짐이 보인다

그런데 망 퀄리티를 제고하고 AWS-3 주파수를 대거 확보하여 기존 서비스 강화에 성공한 버라이즌이 신규 서비스에 소홀할 것 같지는 않다.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다가올 경매에서 그에 상응하는 망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수년간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T Mobile 역시 마찬가지이다. T Mobile도 언급했듯이 지난 수년간 타사대비 성장률이 월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주파수 자원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이었는데, 최근 AT&T가 디쉬를 인수했고 버라이즌은 프론티어 인수에 이어 AWS-3 주파수를 확보한 것과 달리 T Mobile은 신규 주파수 확보가 없다. 실제로 T Mobile은 경매를 앞두고 자본지출 계획을 신중히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파수 경쟁력 확보 여부에 따라 주가와 매출 성장 추이가 달라지는 것을 이미 경험한만큼 이번 대규모 경매에서 미국 통신사의 공격적인 망투자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유선장비주에서 기지국 무선장비주로 수급 이동하는 신호 포착

통신사 CAPEX 확충에 따라 유선장비주 수급은 무선장비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의 주식인 유선장비주는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쳐서 미래의 주식인 무선장비주에 비해 주가 하락폭이 더 크다. 노키아가 그렇다. 노키아의 AI RAN은 RAN이 목표라기보단 연산자원의 수익화가 목표여서 데이터센터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즉, 원래도 유선장비를 다루는 노키아가 수급상 유선장비주로 묶이게 된 여파로 경쟁사인 에릭슨 대비 주가하락폭이 큰 것이다. 심지어 같은 유선장비주 안에서도 AI DC와 연계된 루멘텀, 아리스타 대비 전통 통신장비주인 시스코의 하방경직성이 크다. 유선장비주 대비 무선장비주의 주가 하방경직성이 수급 이동의 서막이라 보며, 에릭슨 주가 상승을 계기로 재료가 살아있는 국내 무선장비주 위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완성차 도매판매 동향(2026년 7월)

상반된 양사의 도매판매. EV 신차 모멘텀의 차이 | 2026.8.4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Key Insight: EV 신차 모멘텀의 차이로 인한 상반된 양사의 도매판매

- 판매동향**
- 현대차/기아의 7월 글로벌 도매판매는 31.8만대/29.8만대로 -5%/+13% (YoY)
 - 합산 글로벌 도매판매는 61.6만대(+3% (YoY)). 내수/해외 판매가 각각 +2%/+3% (YoY)
 - 합산 도매판매는 지난달 +1%에서 +3%로 상승
- 달성률**
- 현대차/기아의 2026년 도매판매 목표는 1%/7% 증가한 415.8만대/335.0만대
 - 7월 누적 판매는 각각 228.7만대/193.0만대로 -45%/+4% (YoY). 계절성을 감안한 달성률은 각각 55%/58%
 - 이는 과거 3년 평균 달성률 57%/58% 대비 하회한 수준. 6년 평균 달성률은 57%/58%로 현대차 하회
- 주가**
- 현대차/기아의 7월 글로벌 도매판매가 -5%/+13% (YoY)로 변동
 - 현대차는 여전히 부진한 반면, 기아는 신차 효과로 증가율 상승
 - 7월 누적 현대차/기아 판매는 229만대/193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5%/+4% (YoY) 변동
 - 글로벌 산업수요 둔화와 경쟁심화 등 산업적 요인과 함께 한국/인도 생산차질과 국내 모델 노후화 등 기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
 - 산업적 요인은 당분간 부정적 영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특히, 중국 EV와의 경쟁은 부담
 - 반면, 기업적 요인은 하반기 개선될 전망
 - 한국/인도에서 부품사 화재건으로 발생했던 생산차질은 대체 생산방식의 발굴로 해소될 것
 - 국내 모델 노후화도 완성차들의 신차 출시로 개선될 것
 - 현대차는 아반떼/투싼/그랜저HEV/아반떼HEV/GV90/아이오닉3 등을 주요 시장에서 출시
 - 기아는 이미 출시했던 EV3/EV4/EV5/PV5 효과가 글로벌로 확산되는 가운데, 셀토스/셀토스HEV 등도 가세할 예정
 - 주가 측면에서 보면, 최근 급격한 조정으로 현대차/기아의 12MF P/E Valuation이 각각 9배대/6배대로 하락
 - 글로벌 동종업계 평균이 8배 초반이라는 점에서 자동차 주식으로도 소폭 저평가 영역
 - 하반기 로봇 및 자율주행 모멘텀들(주요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출시, BD의 RMAC 확대, 생산법인 RA 설립, 공급망 구축, SDV Pace Car 출시 등)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주가는 상승동력을 찾을 것

현대차: 7월 도매판매 -5% (YoY). 내수/해외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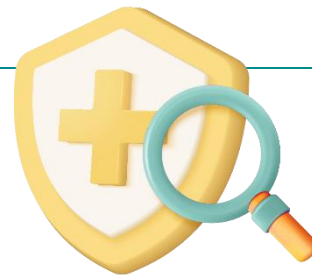
- 도매판매**
- 7월 글로벌 도매판매 31.8만대(-5% (YoY))
 - 내수 4.8만대(-14% (YoY))/해외 27.0만대(-3% (YoY)). 해외판매 비중 85%(+2%p)
 - 내수에서 승용 1.6만대(+13%), RV 1.7만대(-28%), 소상 0.7만대(-10%), 대형 0.2만대(+5%), 제네시스 0.5만대(-34%, 비중 11%)
 - 내수 승용: 아반떼/쏘나타/아이오닉6/그랜저 -57%/+38%/-4%/+94% (YoY)
 - 내수 RV: 캐스퍼/코나 +5%/+6% (YoY). 투싼/싼타페/팔리세이드/아이오닉9 -66%/-10%/-59%/+7% (YoY)
 - 내수 제네시스: G80/GV70/GV80 +105%/+61%/49% (YoY)
 - 내수 친환경차: 2.2만대(-2%). 친환경차 비중 45%(+6%p). EV/HEV 각각 0.6만대/1.4만대(+13%/-8%)
 - 내수 EV 전용 모델: 아이오닉9 1,215대(+7%), 아이오닉6 591대(-4%), 아이오닉5 1,833대(+21%), 넥쏘 960대

기아: 7월 도매판매 +13% (YoY). 내수/해외 +21%/+12%

- 도매판매**
- 7월 글로벌 도매판매 29.8만대(+13% (YoY))
 - 내수 5.5만대(+21% (YoY))/해외 24.3만대(+12% (YoY)). 해외판매 비중 82%(-1%p)
 - 내수에서 승용 1.3만대(+18%), RV 3.6만대(+19%), 상용 0.5만대(+50%)
 - 내수 승용: 모닝/레이 +307%/+37%. K5/K8 -18%/-40%
 - 내수 RV: 니로 +26%. 셀토스/스포티지/쏘렌토/카니발 +51%/-1%/-13%/-4%. 타스만 -65%
 - 내수 친환경차: 3.2만대(+45%). 친환경차 비중 58%(+9%p). EV/HEV 각각 1.3만대/1.8만대(+93%/+22%)
 - 내수 EV 전용 모델: EV3 3,467대(+58%), EV4 849대(-43%), EV5 3,434대, EV6 1,070대(+14%), EV9 442대(+156%), PV5 2,472대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8월 초)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6년 8월 4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이희경 hk.lee@hanafn.com

실적 발표도 끝, 수급을 기다리는 기간

1) 2026년 8월 제약/바이오 산업 Preview

- 정책과 규제** 1) IPO시 공모가 산정에 관한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있었다. 지금도 투자설명서에 예상 시장규모, 임상시험 성공확률, 허가 위험, 개발비용 등을 기재하지만, 중단된 파이프라인도 공개하도록 하여 회사의 기술 본질과 개발 업력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특이하다. 다만 기술이전 계약의 총 계약 규모, 계약금, 조건부 마일스톤, 로열티도 구분해 공개하도록 공시 기준을 개편하는 것을 완전히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 구조를 상세하게 공개하면 향후 다른 파트너와의 계약 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계약 상대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공시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요한 계약이 지체되거나 파트너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2) 올해 3월 행정예고안에 따라 약가개편안이 8/1일부터 시행된다. 제네릭 의약품의 기본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55%에서 45%로 할인 폭을 넓혔다. 국내 제약사는 제네릭 외에도 개량신약, 복합제, 연변경이나 이성체 등의 특허 회피 전략을 취한 경우가 많은데, 할인 방법과 폭은 다르나 모든 품목이 결국 45%까지 할인 되거나 할인 폭이 커진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 대부분 약가 개편안 영향을 받는다. 제약사 중(CDMO 제외)에는 수출 비중이나 신약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SK바이오팜은 영향이 없고, 녹십자, 대웅제약, HK이노엔은 비교적 영향이 적다. 약가 개편 대상이 아닌 바이오시밀러가 주력 제품인 삼성에피소홀딩스, 셀트리온도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미국에서 무역법 301 ‘강제 노동 관세’ 부과를 확정하고 7/24일부터 미국에 들어가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한국 관세는 12.5%이나,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무관세(1년 후 재평가)이며 희귀 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많은 품목이 무관세를 유지하여 영향은 거의 없다. 다만 트럼프가 ‘29년까지 200%까지 관세를 높일 가능성을 언급하여 중장기적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 2Q26 실적 발표도 종료, 수급을 기다리는 시간** 주요 제약사의 실적 발표도 어느 덧 종료 분위기로, 남은 일정은 SK바이오팜(8/5), 알테오젠(미정), SK바이오사이언스(8/10) 등이 있다. 매년 3분기가 기술이전이 최저 비수기인 만큼 최근 해외 소식도 줄어들었다. 하반기 학회 일정이 확정(주로 regular abstract)된 회사들의 소식이 있겠으나, 코스닥이 700p 초반까지 하락한 현재에는 바이오텍의 경우 수급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따라서 기술이전, 학회 일정, 3분기 실적 회복 등 펀더멘털 요소와 대주주 양도세 및 배당 소득세 회피 분위기,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 수급이 함께 몰리는 4분기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지금의 시간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

2) 2026년 8월 추천 종목

- 8월 코스피 Top pick: SK바이오팜(유지)** 엑스코프리 WAC의 QoQ 성장률이 2.8%→8.5%로 증가했고, 2분기 고환율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Q26에 우수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향이 없다면 서프라이즈도 기대할 수 있다. Valuation도 매력적이다. EV/EBITDA가 30배 이상을 유지하여 고점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16배~17배까지 감소하였고 유사한 OPM 34%(FY1)를 갖는 셀트리온의 21배 보다 낮아졌다. (동사 OPM 38%)
- 8월 코스닥 Top pick: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올릭스** 1) 알테오젠은 7/16 코스피이전시장 유예와 함께 무상증자 발표(1:0.3), 8/4 MSD 실적 발표에서 Qlex의 매출 성장세 확인, 추가 L/O 기대 등 단기 이벤트 다수, 2) 리가캠바이오도 국민성장펀드의 5천억 투자금의 원활한 납입(7/24), 이후 J&J와 공동개발 중인 LCB84의 3Q 내 일부 고형암에 대해 2상 부분 진행 확인, 추가 L/O 기대. 3) 올릭스는 최근 Alnylam의 매출 가이던스 하향에 따라 peer siRNA 기업으로써 주가에 영향이 있겠으나, 하반기 탈모치료제 1b 결과 확인, Lilly와의 2상 진입 또는 옵션 행사 기대감,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등 매력적인 요소 다수.

주택마진이 보여준 실적, 부진한 주택지표

건설 Weekly | 2026.8.4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12.1%p 하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외인이 매도, 연기금이 매수했다. 기관은 삼성물산과 삼성E&A를 매수, GS건설을 매도했다. 외인은 GS건설과 삼성물산을 매도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하락한 가운데, 삼성물산을 제외한 나머지 대형 건설사들이 크게 하락했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9.2로 4주 만에 하락했다(-0.1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48주 연속 상승(+0.08%), 전세가는 59주 연속 상승했다(+0.10%). 수도권 매매가는 74주 연속 상승(+0.16%), 전세가는 75주 연속 상승했다(+0.17%). 서울 매매가는 79주 연속 상승(+0.24%), 전세가는 76주 연속 상승(+0.25%)했다.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 매매가는 모두 상승했다(+0.01%).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52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 48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5%, +0.04%).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0.09%), 대전(+0.03%), 광주(+0.03%), 인천(+0.02%) 상승, 부산(-0.02%), 대구(-0.01%)가 하락했다.
- 대부분의 대형사 실적발표가 마무리되고 있다. 저번 주에는 GS건설, 삼성물산, DL이앤씨, 현대건설의 실적발표가 있었다. GS건설은 기대치 하회, 나머지 3사는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GS건설은 건축주택 마진(GPM 17.6%)은 잘 나왔으나, 판관비에서 공사비 충당금 등 약 1천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실적 미스에 따라 주가는 크게 하락했으나, 전망에 관한 내용은 괜찮았다. 상반기 분양 1.1만세대를 하며, 연간 목표인 1.4만세대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27년 이후의 실적 기대감을 키웠다. 여기에 동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면서, 하반기 반등할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계열사 공사 등의 힘입어 건축 OPM 5%를 기록했으며, P5 Fab2, 테일러 2공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며 실적 안정성을 높였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 변동이 커, 단기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배당을 고려할 때, 밸류에이션은 저렴한 수준이다.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은 기대 이상의 건축주택 마진(DL이앤씨 23.3%, 현대건설 13.2%)이 나타나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다만 상반기 착공 부진(현대건설 3,100세대, DL이앤씨 3,600세대)으로, 연간 가이던스 달성을 위한 하반기 의존도가 커졌다.
- 6월 주택지표가 발표됐다.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착공은 상반기 누적 11.8만호로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했으나, 기저가 너무 낮은 수준이다. 연간 26만호 착공 속도로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6월 미분양은 증가했다. 경북/강원/충남 등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미분양이 증가한 가운데, 준공후 미분양도 부산/대구/강원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했다. 오히려 매매거래량은 양호한 수준이었다. 특히 5/9대책 이후 거래량 감소를 우려했으나, 서울만 감소했을 뿐 인천/경기/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거래량을 이어갔다.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 흐름을 전망한다.
-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 속에서 하반기 나타날 수 있는 상승 재료는 데이터센터다. 특히 GS그룹의 동해 AI데이터센터 관련 뉴스(인허가, 자금조달)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관련 종목으로 GS건설을 TOP PICK으로 추천한다. 재건(해외EPC), 원전, 주택 등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2026년 8월 3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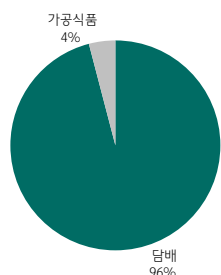
일본

TP(컨센서스) 6,990 JPY
CP(7.31) 7,135 JPY

Key Data

국가	JAPAN
상장거래소	Tokyo
산업 분류	필수소비재
주요 영업	담배
홈페이지	www.jt.com
시가총액(십억USD)	14,270.0
시가총액(조원)	128.8
52주최고/최저(USD)	7218/4521
주요주주 지분율(%)	
JAPAN MINISTRY OF FINANCE	33.34
재팬토바코	11.2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9.4 27.8 55.6
상대	19.6 15.6 19.8

매출구성



Financial Data

(십억 JP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3,056.7	3,467.7	3,807.7	3,965.9
영업이익	314.2	867.0	986.7	1,080.2
순이익	179.2	510.2	621.6	696.1
EPS(JPY)	261.0	287.4	353.3	395.9
EPS(YOY, %)	(3.9)	10.1	22.9	12.1
ROE(%)	4.7	13.0	15.2	16.6
PER(배)	40.4	20.1	20.2	18.0
PBR(배)	1.9	2.5	3.0	2.8
배당률(%)	4.8	4.1	3.7	4.1

자료: 재팬토바코, 하나증권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재팬토바코 (2914.JP)

2Q26 Re: 시장 기대치 상회

2Q26 Re: 시장 기대치 상회

2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1조 621억엔(YoY 20.0%), 3,404억엔(YoY 33.1%)을 기록했다. 가격 인상 효과 및 견조한 판매량을 기반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전체 담배 출하량은 1,503억개비(YoY 1.0%)를 시현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일본 포함)/서유럽/ EMA의 출하량이 각각 YoY 1.2%/ -1.2%/ 1.5% 기록했다. ① 일반 담배 출하량은 1,463억 개비(YoY 0.5%)를 시현했다. EMA 중심으로 판매량이 증가하며 아시아와 서유럽 지역 약세를 상쇄했다. ② 전자 담배 출하량은 41억개비(YoY 24.2%)를 기록했다. 일본 4월 담뱃세 인상 전 1분기 가수요 영향이 2분기 내 점진적으로 완화되었다. 글로벌 'Ploom' 출하량이 YoY 31.5% 증가하며 전자 담배 출하량 증가에 기여했다. 'Ploom Aura' 출시 이후 구조적인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러우 전쟁 관련해서 지속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러시아 담배 사업의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형 전자담배 판매 호조

2분기 재팬토바코의 관련형 전자담배 출하량은 전년대비 24.2% 증가한 41억개비를 시현했다. 내수는 전년대비 29.1% 증가한 35억개비를 시현했다. 내수 점유율은 18.5%(YoY 3.3%p up, QoQ 1.1%p up)를 기록했다. 전자담배 스틱 점유율은 16.8%(YoY 3.7%p up, QoQ 1.0%p up)를 시현했다. 일본의 4월 담뱃세 인상 전 1분기 가수요 영향은 2분기 내 점진적으로 해소되었다. 일본 내 'Ploom' 출하량은 YoY 35.9% 증가했다. 서유럽 'Ploom' 출하량은 이탈리아(YoY 75.9%) 중심으로 고른 성장세를 시현했다. 'Ploom Aura' 출시국은 5월 기준 25개국 → 7월 기준 29개국으로 확대됐다.

2026년 가이던스 상향

재팬토바코는 26년 연간 가이던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가격 인상 효과를 반영해 각각 3조 8,885억엔(YoY 12.0%) 및 1조 80억엔(YoY 16.3%)로 상향 조정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이전대비 1,800억엔 및 800억엔 상향한 수치이다. 하반기는 추가적인 'Ploom' 관련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26 ~ 28년(3개년) 담배 사업 성장률 목표는 high single digit 수준이다. 또한, 중동 정세 관련한 영향은 제한적이며, 에너지 비용 및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는 하반기 가이던스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주당배당금도 272엔(YoY 16.2%)으로 기존 가이던스로 제시한 242엔 대비 30엔 상향했다. 배당성향은 약 75% 수준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가는 12M Fwd PER 약 19배로 역사적 밴드 상단에서 거래 중이다.

2026년 8월 3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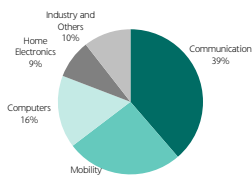
일본

TP(컨센서스) 12,376 JPY
CP(7.31) 7,416 JPY

Key Data

국가	JAPAN
상장거래소	Tokyo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전자 장비 기기 & 부품
홈페이지	www.murata.co.jp
시가총액(십억JPY)	14,557.6
시가총액(조원)	131.4
52주최고/최저(USD)	12895/2240
주요주주 지분율(%)	
블랙록	8.86
GOVT PENSION INVST FUND JAPAN	7.42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37.6) 136.5 221.2
상대	(37.4) 124.2 185.5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JPY)

투자지표	2025	2026	2027F	2028F
매출	1,830,856	1,830,856	2,041,007	2,375,062
영업이익	281,835	281,835	434,745	617,406
순이익	233,920	233,920	339,374	476,430
EPS(JPY)	127.7	127.7	187.4	265.0
EPS(YOY)	0.0	0.0	46.8	41.4
ROE(%)	10.1	10.1	12.2	16.7
PER(배)	18.4	26.7	39.6	28.0
PBR(배)	1.7	2.3	4.7	4.2
배당률(%)	2.5	1.9	0.9	1.1

자료: Murata, 하나증권



Analyst 김민경 minkyung.kim@hanafn.com

Murata (6981.JP)

가격 조정 가능성 확대

FY1Q26 Review: 데이터센터향 수요 강세 지속

회계연도 기준 2026년 1분기 매출은 5,023억엔(YoY +21%, QoQ +9%), 영업이익은 985억엔(YoY +60%, QoQ +25%, OPM 19.6%)을 기록해 Bloomberg 컨센서스를 각각 6%, 9% 상회했다. 데이터센터와 모빌리티 수요 증가에 따른 컴포넌트 부문 성장이 전사 실적을 견인했다. 영업이익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동률 상승 효과와 엔화 약세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평가 하락폭은 평년보다 제한적이었으나 전년동기대비 약 150억엔의 부정적 영향이 반영되었다. 응용처별로는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81%, 전분기대비 24% 증가하며 컴퓨터향 매출 성장이 두드러졌다.

캐패시터: 수주·가동률 모두 최고 수준, 가격 조정 가능성 확대

캐패시터 매출은 2,825억엔(YoY +30%, QoQ +17%)을 기록했으며 컴포넌트 부문 영업이익률은 32.8%로 회계 기준 2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30%를 상회했다. 1분기 신규수주액 4,155억엔(YoY +85%, QoQ +26%), 수주잔고 4,022억엔(YoY +170%, QoQ +49%)으로 전 분기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MLCC BB Ratio는 전분기 1.36배에서 1.47배로 상승했으며 가동률이 95%에 근접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생산되는 즉시 출하되고 있어 재고 축적은 어려운 상황이다. Murata는 시장 전반의 공급 포트폴리오 변화로 일부 제품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과 공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영역에서 가격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높은 수주잔고, 낮은 재고 및 생산능력 여력이 높지 않은 현재 수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MLCC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향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데이터센터향 MLCC 호조로 가이드선 상향 조정

Murata는 FY2026 매출 가이드선을 1,500억엔 상향한 2조 1,100억엔(YoY +15%), 영업이익 가이드선은 500억엔 상향한 4,300억엔(YoY +53%)으로 제시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연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AI 서버 중심 부품 수요 확대 및 엔달러 환율 가정을 150엔에서 155엔으로 조정한 것이 주 요인이다.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 가이드선은 기존 3,250억엔에서 3,706억엔으로 상향조정 했는데 연간 데이터센터향 MLCC 매출이 전년대비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Murata는 Capa 운영 계획과 관련해 추가 증설보다는 유효 생산능력과 생산성 개선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가동률이 95%에 근접한 수준이며 최근 Nvidia에서도 MLCC 수급 이슈가 경영진 차원으로 격상되었다고 언급한 점을 미루어 볼 때 MLCC 공급 업체의 가격 협상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8/3	262,500	239,500	-8.76%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8/3	1,718,000	1,567,000	-8.79%	- HBM4 본격 출하와 서버용 DRAM·고성능 eSSD 수요 확대에 실적 성장세 지속 전망 - 일반 메모리 매출의 최소 30%를 장기 공급계약으로 확보해 중장기 이익 가시성 상승
현대차 (005380.KS)	8/3	388,000	393,000	1.29%	- HEV 비중 사상 최대 수준까지 확대되며 제품 믹스 개선 지속 - 단순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AI 프리미엄 구간 진입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181,000	3.42%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한국금융지주 (071050.KS)	8/3	206,500	196,900	-4.65%	- 중시 거래대금 증가와 IB-트레이딩 부문 호조로 높은 이익 체력, ROE 개선세 지속 전망 - 발행어음 운용 경쟁력과 IMA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조달 규모 개선 기대
BNK금융지주 (138930.KS)	8/3	15,170	15,090	-0.53%	3분기 대손비용 2천억원 이하로의 감소 여부가 중요 체크포인트 -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2026년 총주주환원율이 46%까지 상승할 전망
C제일제당 (097950.KS)	8/3	191,400	191,300	-0.05%	- 바이오 부문의 판가 회복과 원가 부담 완화로 하반기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 - 미주 중심의 글로벌 식품 성장과 비주력 사업 재편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기대
풍산 (103140.KS)	8/3	71,200	67,900	-4.63%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두산퓨얼셀 (336260.KS)	8/3	24,550	25,950	5.70%	- 하반기 주기기 매출 회복과 독일향 공급계약 생산 본격화로 외형 성장 기대 - CHPS 낙찰 물량의 순차적 계약과 미국 데이터센터향 PAFC·셀스택 판매 확대 기대
제닉 (123330.KQ)	8/3	24,500	22,750	-7.14%	- 하이드로겔 마스크 수요 확대와 유통사·브랜드의 신제품 출시 증가로 고성장세 지속 - 높은 기술 진입장벽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42%	+2.71%p	+60.18%	+8.3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8/3	262,500	239,500	-8.76%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8/3	1,718,000	1,567,000	-8.79%	- HBM4 본격 출하와 서버용 DRAM·고성능 eSSD 수요 확대로 실적 성장세 지속 전망 - 일반 메모리 매출의 최소 30%를 장기 공급계약으로 확보해 중장기 이익 가시성 상승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181,000	3.42%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아모레퍼시픽 (090430.KS)	8/3	130,000	129,800	-0.15%	- 북미·유럽과 코스알엑스의 고성장으로 글로벌 실적 개선세 본격화 - 지역채널 다각화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멀티브랜드 기업으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키움증권 (039490.KS)	8/3	293,500	274,000	-6.64%	- 브로커리지와 ETF LP·PI 트레이딩 호조로 2분기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 - 해외주식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과 PBR 0.8배·배당수익률 7.7%의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종산 (103140.KS)	8/3	71,200	67,900	-4.63%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NAVER (035420.KS)	7/27	207,500	207,500	0.00%	- AI 탭 광고 수익화와 커머스 연계 강화로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 - 두나무 합병 및 네오클라우드 수주 구체화가 추가 재평가의 핵심 동력
SK이노베이션 (096770.KS)	7/20	121,400	108,000	-11.04%	- 윤활기유 호조와 SK온 적자 축소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 정제마진 강세와 그룹3 윤활기유 공급 부족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대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69,500	-8.08%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151,000	2.86%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2.90%	-2.15%p	+34.32%	-22.6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5,170	-6.4%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	2026.02.24	15,160	11,885	-21.6%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5,500	20.1%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PLUS 글로벌 HBM반도체 (442580)	2026.07.16	106,895	93,980	-12.1%	- HBM(고대역폭메모리) 밸류체인인 핵심 제조사와 장비·부품·소재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HBM 집중 테마 ETF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합산 비중이 75% 수준으로 핵심 제조사에 집중된 구조이며, 그 외 글로벌 장비, 부품 관련 기업까지 편입해 HBM 성장 모멘텀 전반의 수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8,865	-11.2%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교سه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자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20,965	-1.6%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TIGER 글로벌 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6,480	-10.6%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AI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20,620	-11.1%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15시 30분 기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3.73	81.96	-2.1%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 내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37	96.07	-2.3%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1.89	91.83	-0.1%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4.67	11.7%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40.53	59.4%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06.22	80.72	50.37	-37.6%	•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장 모멘텀 수혜 기대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77.67	179.35	0.9%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2.00	147.01	-3.3%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06시(썸머타임 적용시 05시)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2	8.3	8.4	8.5	8.6	8.7	8.8
	- 일본 7월 제조업 PMI (54.5, 이전치 54.7) - 한국 7월 제조업 PMI (53.1, 이전치 52.1) - 중국 7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50.9, 이전치 51.7) - 유로존 7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2.0) - 미국 7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3.8) - 미국 7월 ISM 제조업지수 (E 54.1, 이전치 73.0) - 미국 7월 건설지출 (E --, 이전치 0.1%)	- 한국 7월 CPI (E --, 이전치 3.2%) - 한국 7월 근원 CPI (E --, 이전치 2.5%) - 미국 6월 내구재 주문 (E --, 이전치 -4.5%)	- 일본 7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9) - 중국 7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E 54.0, 이전치 54.1) - 유로존 7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6) - 유로존 6월 PPI (E --, 이전치 5.9%) - 미국 7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3.6) - 미국 7월 ISM 서비스지수 (E 54.3, 이전치 54.0)	- 독일 6월 공장수주 (E --, 이전치 1.9%) - 유로존 6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0.2%)	- 일본 6월 선행지수 (E --, 이전치 116.8) - 일본 6월 동행지수 (E --, 이전치 118.5) - 미국 7월 실업률 (E 4.3%, 이전치 4.2%)	
8.9	8.10	8.11	8.12	8.13	8.14	8.15
- 중국 7월 PPI (E --, 이전치 4.1%) - 중국 7월 CPI (E --, 이전치 1.0%)	유로존 8월 섹터스 투자자기대지수 (E --, 이전치 -3.1)	- 미국 7월 NFB 소기업 낙관지수 (E --, 이전치 97.4) - 미국 7월 기존주택매매 (E --, 이전치 -2.4%)	- 한국 7월 실업률 (E --, 이전치 2.7%) - 일본 7월 공작기계수주 (E --, 이전치 52.7%) - 미국 7월 CPI (E --, 이전치 3.5%) - 미국 7월 근원 CPI (E --, 이전치 2.6%)	- 일본 7월 PPI (E --, 이전치 7.1%) - 미국 7월 PPI (E --, 이전치 5.5%)	- 한국 7월 수출물가지수 (E --, 이전치 48.9%) - 한국 7월 수입물가지수 (E --, 이전치 20.6%) - 유로존 2분기 GDP (E --, 이전치 0.4%) - 미국 7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0.2%) -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54.4)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